

대림 제2주일(다해)-12월09일

시편 126(125), 1-2ㄱ-2.2ㄴ-3, 4-5.6(◎ 3 참조)

손 상오 신부 작곡

주 님 이 큰 일 을 하 셧 기 에 우 리 는 기 뻔 하 였

Fine

네.

1.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
2. 그때 민족들이 말하
3. 주님, 저희의 귀양
4. 뿌릴 씨 들고 울며가던 사

실 때,
였 네.
살 이,
람 들,

우리는 마치
“주님이 저들에게
네겔 땅

꿈꾸는 듯
큰일을
시냇물처럼

하였
하셨구
되돌리소

네.
나.”
서.

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
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
눈물로 씨 뿌리던 사

치
기
람

고,
에
들,

D.C.

우리 혀에는
우리는
환호하며
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

환성이 가득 찼
기뻔하였
거두리
돌아오리

네.
네.
라.
라.